

# “신세계특급호텔 계획대로 추진”

### 윤 시장 “지역 숙원사업...상권·신세계 협력을” “원칙 무시 안돼”...판매시설 면적 조정 불가피

윤장현 광주시장은 6일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주)신세계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해 “원칙의 잣대가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회견을 열어 “특급호텔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역상권과 신세계 측이 지혜롭게 협력하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판매시설 면적, 주변 상권 문제, 교통대책 등을 신세계 측에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적극 추진’에서 ‘신중 검토’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보도(광주일보 6일자 1면)가 나오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윤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애초 협약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보니 판매시설 면적이 컸다”며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환경, 상권과의 문제 등을 (신세계측과) 협의를 해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지역발전 위해 특급호텔이 절실할 필요하다고 판단, 많은 대기업을 찾아 다녔다”며 유치 과정을 소개

했다.

이날 윤 시장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신세계측의 판매시설 면적 조정은 불가했던 백화점과 마트 면적 3만6694㎡보다 70%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기존 신세계 매장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작으며 새로 짓게 될 면적도 그에 비해 결코 넓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매시설 면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또 “판매시설 면적을 호텔 면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판매시설을 늘리더라도 이로 인한 고객 예상 방문 수 증가는 10% 정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신세계는 올해 5월 서구 화정동 일대 2만5634㎡에 지하 7층, 지상 21층의 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백화점, 백화점, 마트)을 건립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

# ‘목포의 눈물’ 80년...목포 비전 노래한다

###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 잇단 전시·강연

### 10~15일 도립도서관 남도화랑서 이난영 유품 등 전시

### 16~23일 목포약기사 강연·시낭송...17일 유달산 공연

“사공의 뱃노래 가물 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아씨 아롱저진 옷자락/ 이별에 눈물이나 목포의 설음~”

2016년 이난영 탄생 100주년과 호남의 애국가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 발매 8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의미 있는 전시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목포의 눈물 기념 사업회’ 주최로 1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내 남도화랑(10~15일)과 목포약기사(16~23일)에서 진행된다.

‘모던 메모리(Modern memory)’로 이름 붙여진 이번 전시에는 이난영이 즐겨 입었던 한복과 양장, 신발 등 유품을 비롯한 김시스터즈 기증품, 유달산 노래비 역사사진, 2006년 수목장 이전 추모 사진 등이 전시된다.

또 기념전시 중간 행사로 강연과 콘서

트도 개최된다. 오는 17일 유달산 노래비 앞에서는 극단 갯돌의 공연, 토크 쇼 ‘목포의 눈물 노래 이야기(정태관)’, 아코 리스트 김광호의 ‘목포의 눈물’ 연주 등이 펼쳐진다.

목포 약기사에서는 소프라노 이찬순의 ‘사의 찬미’,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의 ‘목포의 눈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운선 목포대 교수의 ‘우리 노래와 트롯’ 강연, 극단 갯돌의 ‘산단이 풍경’ 공연, 시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정태관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삶의 노래, 국민의 노래, 민족의 노래였던 ‘목포의 눈물’ 80주년을 맞아 21세기 한국과 목포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의 눈물’의 탄생은 1935년 1월 오키 레코드에서 ‘조선 10대 도시 찬



이난영 사후 4년이 지난 1969년 당시 목포에서 약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씨가 사재를 털어 건립한 ‘목포의 눈물 노래비’ 앞에서 기념 현화하고 있는 모습.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 제공>

가’ 공모 결과, 평양과 부산 그리고 목포 노래가 최종 당선돼 8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쳐 나온 노래다. 이 노래는 목포 출신 문인 문일석(본명 윤재희)이 지은 시에 손목인이 곡을 붙여, 데뷔 3년 차였던 그 저 그런 이난영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또 유달산 중턱에 자리 잡은 ‘목포의 눈

물 노래비’는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인 1969년 당시 목포에서 목포약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씨가 사재를 털어 세운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라는 상징성과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목포=고석규기자 youso@

# 최경환 부총리 “TPP 참여 검토”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쌀은 양허대상 제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화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전날 TPP 협상을 타결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없다는 질의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 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당시 정부(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여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홍어 껌질서 치매 예방 소재 발견

## 간독성 등 부작용 없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홍어 껌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강릉원주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변희국 교수팀이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파는 치매 질환 관련 약물은 20여 종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약물이

주를 이룬다. 치매가 발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없었다. 이번에 개발한 소재인 PEFL 펩타이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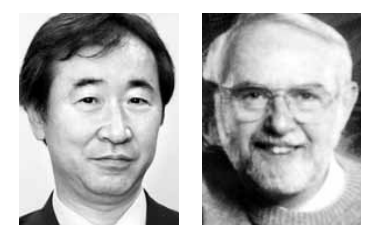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 예방 소재를 투여해 실험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이 50% 억제되고 대조군보다 뇌세포 생성률이 56% 높았다. 치매 예방 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도 대조군보

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소재는 홍어 껌질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존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 구토,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 우려가 없다.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홍어 껌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홍어 껌질에서 나온 치매 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성공하면 노인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연구를 이끈 변희국 강릉원주대 교수는 “홍어 껌질 유래 펩타이드의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하고 있다”며 “국제학술지 기재와 특허등록 후 제약 회사와 기술이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일본 가지타 다카야키 캐나다 아서 맥도널드

## 노벨물리학상 수상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가지타 다카야키와 캐나다의 아서 맥도널드 등 2명이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 (현지시간) 일본 도쿄대 교수인 가지타 다카야키(56·왼쪽)와 캐나다 퀸스대학 명예교수 아서 맥도널드(72·오른쪽)가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중성미자 진동 발견을 발견한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이들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발견이 물질 내부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수상자 2명은 노벨상 상금 800만 크로나(약 11억2천만원)를 나눠받게 된다. /연합뉴스

## 1면 ‘민주주의 전당’서 계속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서울에 건립해야 국격에 맞다고 판단된다”며 “세 곳에 전당을 건립하려 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데다가 어렵사리 이뤄진 합의까지 흔들리면서 지

역에 전당을 건립하는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이전을 앞둔 광주교도소 부지 4만㎡에 300억원을 들여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시는 합의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며, 지역 정치권들의 반발도 예상돼 기념사업회와 갈등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비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주체가 기념사업회로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합의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념사업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li> <li>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li> <li>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li> <li>은행원, 연구원 29~49세</li> <li>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li> <li>사업가, 자영업 29~39세</li> <li>세무사, 연구원 29~48세</li> <li>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li> <li>교사, 교수 28~49세</li> </ul>	<p>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li> <li>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li> <li>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li> <li>의사, 약사, 교사 25~39세</li> <li>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li> <li>간호사, 은행원 26~47세</li> <li>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li> <li>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li> <li>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li> </ul>	<p>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32~65세</li> <li>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li> <li>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li> <li>대기업 간부 36~59세</li> <li>회사원, 자영업 33~67세</li> <li>'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li> </ul>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비엔리빙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4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통인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인재를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대상**  
가. 모집부서: 광고영업(남 0명, 여 0명)  
•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나.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다. 자격 및 대상  
(1)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출서류**  
가. 이력서 ..... 1 통  
나. 자기소개서 ..... 1 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 부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1 부
-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2015. 10. 5(월) ~ 10. 12(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10. 14(수) 개별통보  
다. 면 접: 2015. 10. 15(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0. 16(금)
-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220-0514 우. 61482)  
\*우편접수는 2015. 10. 12(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일보**